

# 제 1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20년 3월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제1장]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 • I. 정치철학의 문제

우리의 예언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가졌던 비전을 나는 기껏해야 흐릿하게나마 재현하거나 나약하게 모방하는 것조차 여러분에게 제대로 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러한 비전이 한 번도 비추어진 적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것에 대한 아주 희미한 회상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역 - 바로 신의 왕국이 하나의 허구적인 국가로 조롱되어 불리는 영역 - 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될 수도 있다.

신의 왕국이 허구적인 국가로 조롱되어 불리는 것은 절대적인 선, 미국인들이 자국을 언덕 위의 빛나는 도성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무너졌음을 얘기한다.

정치철학의 의미나 정치철학이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테네에서 정치철학이 빛을 본 이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명백하다. 모든 정치적 행동은 보존이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방향성을 얘기한다.

보존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변화가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방지하려 한다. 변화를 원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이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모든 정치적 행동은 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인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에 대한 생각에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는 좋은 것에 대한 인식은 의견이라는 성격을 띤다.

좋다, 나쁘다는 말은 그 안에 좋다, 나쁘다는 것에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격은 이제 더 이상 의문시되지 않지만 좀 더 성찰하여 보면 그 또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우리가 그것을 의문시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좋은 것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서 의견이 아닌 지식으로서의 좋은 것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적 행동은 그것 자체에 **좋은**이라는 지식, 즉 좋은 삶, 좋은 사회가 무엇이냐는 지식을 향한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견은 빈자리를 채우지만 계속해서 의문의 대상이 된다.

이는 과학철학자 칼 포퍼의 "비판은 의심에서 출발한다. 의심이 없는 곳에서 과학은 자라지 않으며 이런 문맥에서 의심은 '내가 생각하는 과정(Cogito)'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Gogitamus)'이다."라는 반증주의의 사상과 통한다.

의견들 사이에서 지식을 꺼내고 모아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좋은 사회가 곧 완전한 정치적 선(善)이기 때문이다.

이때 '완전한'의 의미는 Perfect을 의미하지 않는다.

Better good, 차선을 얘기한다.

이전 사회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선은 이전 사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함으로 표현한다.

정치철학은 이러한 지향성이 명시화되고 1인간이 좋은 삶과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을 2자신들 삶의 구체적인 목표로 삼는 경우에 등장한다. 이러한 탐색을 정치철학이라고 부를 때에 <정치철학>은 보다 더 큰 전체 즉 <철학>의 일부분이라는 것 또는 <정치철학>은 <철학>의 한 분야라는 점이 함축되어 있다.

1번은 지식에 관한 것, 2번은 행동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선지자 계명 '1.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서 1번은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한다는 것, 지식에 관한 것이다. 2번은 행동에 관해 실천하라는 의미이다.

선에 대한 탐구는 지향하다보면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철학은 정치적 문제들을 정치적 삶에 적합하게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주제는 그것의 목표, 즉 정치적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사회문제인 동시에 자기문제가 된다. 정치적 문제란 정치적 삶을 얘기한다.  
삶이란 문제해결의 연속이며 정치는 실제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정치철학의 주제는 모든 인간이 그들의 빈곤한 자아를 넘어서 고양시킬 수 있는 인류의 거대한 목적들인 자유와 정부 혹은 제국이다. 정치철학은 정치적 삶, 비철학적인 삶, 인간적 삶과 가장 밀접한 철학의 한 분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다.

지혜에 대한 탐구로서의 철학은 보편적인 지식, 즉 전체에 대한 지식의 탐구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누구나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러한 탐구는 불필요할 것이다. 전체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다고 해서 인간이 전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때의 전체는 Total이 아닌, Universal을 얘기한다.  
이때의 전체는 보편성, 정당성을 의미한다.  
철학은 보편적인 지식, 즉 전체에 대한 지식의 탐구라는 것은 의견에서 지식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란 부분들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순수한 에테르나 암흑과 같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들>에 대한 탐구는 신,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의 탐구, 혹은 모든 사물들의 본성이 무엇이나의 지식에 대한 탐구이다. 그러한 본성들이 총체적으로 <전체>인 것이다.

전체는 정리된 것과 혼란하다는 것,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리된 코스모스의 전체이다.  
전체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보편성에 눈을 뜬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것이다. 구분하지 못하거나 암흑과 같은 것이 아니다.

철학이란 본질적으로 진리의 소유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탐구이다. 철학자의 특징은 <그는 그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데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들과 관련된 우리들의 무지에 대한 통찰이 그로 하여금 모든 힘을 기울여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하도록 만든다. -중략- 이에 따라 철학은 좀처럼 토론이나 논쟁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정의 단계에 어찌면 결코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 부질없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진정한 지식 또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그것에 대한 맹목이나 무관심보다 더 낫다. 설사 그러한 무관심이나 맹목이 수많은 지엽적인 질문들 또는 덧없는 질문들과 관련된 지식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최고의 존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저급한 존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신으로부터의 가장 작은 지식이 인간들로부터 가장 큰 지식보다 낫다.

이와 같이 철학을 이해할 때 정치철학은 철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정치철학**은 정치적인 것들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정치적인 것들의 본질에 대한 **지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다. 정치적인 것들이란 본질상 시인과 부인, 선택과 거부, 칭송과 폄하의 대상이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인간들의 복종, 충성, 결정 혹은 판단을 요구한다.

정치철학은 불확실한 것(상대적인 것)을 확실한 것(절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yes와 no뿐이다. 절대적인 것은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정치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것들이 제기하는 바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판단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 즉 그것들의 선과 정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준들을 알아야만 한다. 정치철학이 스스로의 주제를 다루기 원한다면 그러한 기준들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철학이란 바로 정치적인 것들의 본질, 그리고 정의, 선, 정치질서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상은 의견과 지식의 구분에 무관심하다. 반면에 정치철학은 정치적 근본 문제들과 관련된 의견을 지식으로 대체하려는 의식적이고 일관되며 엄격한 노력이다.

정치철학이 아닌 정치사상은 법이나 규정, 시와 이야기, 그 중에서 특히 논설이나 공공연설들 속에 충분히 표현된다. 그러나 정치철학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은 논고이다. 정치사상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아버지> 같은 말이나 <너희들은 .....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표현을 사용한 최초의 인간은 최초의 정치 사상가이다. 그러나 정치철학은 기록이 남아 있는 과거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 내용이 알려진 시기에 출현했던 것이다.

아버지와 자식은 정치철학적인 관계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유전적으로 자기 자식임을 확신하기 어렵다.

정치철학은 상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록 전부터 존재했다.